

인권활동가의 러닝메이트

# 인권재단 사람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 | Brian Impact | 한국사회가치평가  
KOREA SOCIAL VALUE ASSESSMENT

#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한국사회가치평가

## Contents

<b>1</b>	<b>인권재단 사람</b>	04
	인권재단 사람의 시작	
	인권재단 사람이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b>2</b>	<b>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b>	08
	단체 설립 지원 및 활동가 양성을 통한 인권 의제 발굴	
	모두의 인권을 위한 '포용적 공간 생태계' 구축	
<b>3</b>	<b>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b>	15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임팩트 1. 새로운 인권 의제 발굴로 인권 사각지대를 비추다	
	임팩트 2. '스테이션 사람'이 바꾼 인권 운동의 풍경	
<b>4</b>	<b>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b>	30

2024 IMPACT REPORT

# 1 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의 도전을 함께하는 러닝메이트입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인권친화적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 인권재단 사람의 시작

1992년 변호사 사무실 한 칸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한 '인권상담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인권재단 사람은 2004년 9월 21일 창립 이사회를 열고 '다산인권재단'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인권재단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인권 의제의 발굴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 '인권재단 사람'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단순한 기금 지원을 넘어 인권단체의 역량 강화, 인권 옹호자 보호, 인권운동의 사회적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재단은 인권운동의 기반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는 데에도 힘써,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고 이들을 위한 인권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인권재단 사람이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의 '베이스캠프' 인권재단 사람



인권활동의 인프라 구축

대다수 인권단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개인 후원자들의 기부금에 의지해 소규모로 운영되기에, 물리적인 활동 기반을 만드는 일에 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에게 필수적인 공간과 조직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합니다.

- **공간 '스테이션 사람' 운영:** 인권활동가와 조직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네트워킹하며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스테이션 사람을 건립하여, 작은 조직의 성장과 활동가들의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재정발전소:** 인권단체의 기부금 운영 시스템을 지원하고, 기부금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인권활동가 및 조직 성장 지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증가하며 인권활동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 인권단체는 대개 2-3인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활동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하고, 사업적·조직적 역량을 키워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권활동 성장지원사업 '무빙':** 활동 5년 내외의 중견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의 양적·질적 확대를 돕습니다. 지원금과 교육, 워크숍, 러닝메이트 지원 등을 통해 사업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저연차 인권활동가 공동교육:** 활동기간 3년 이하의 인권활동가가 모여 기초 실무 역량을 쌓고 인권운동의 관점을 구체화하며 운동 전망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무 역량강화 교육:**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캠페인 및 모금 기획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부금품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슬기로운 마음 생활:** 인권활동가들이 잠시 쉬어가며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인권의제 대응

인권침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 기후위기 등과 같은 새로운 인권문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권 의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험적인 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초기 인권단체의 사업적·조직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금과 사무공간, 코칭과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활동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를 뒷받칩니다.
- **인권활동 119:**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2024 IMPACT REPORT

#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사업을 통해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안정적 활동 공간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제발굴 기반 마련, 인권 친화적 공간 생태계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단체 설립 지원 및 활동가 양성을 통한 인권 의제 발굴

기존 인권운동의 사각지대에서 움트고 있는 초기 인권단체들의 조직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권의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습니다. 또한 재난참사 권리옹호 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며 새로운 인권의제를 마주하는 인권운동의 대응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했습니다.

<p><b>한국농인LGBT+ 인큐베이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션/비전/핵심가치 수립을 위한 내부 워크숍 단계적 진행</li> <li>• 정관 작성,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하여 임의 단체 설립 추진</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지원</li> <li>• 핵심사업 시범운영 지원,사업 전과정 코칭</li> </ul>	
<p><b>청소년인권운동대 지음 인큐베이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션/비전/핵심가치 수립을 위한 내부 워크숍 단계적 진행</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모금 전략 수립</li> <li>• 사업 전과정 코칭 및 모금 캠페인 진행</li> <li>• 미션/비전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재정비</li> </ul>	
<p><b>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인큐베이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운영 역량 강화 지원</li> <li>• 비전미션 정립 과정 지원</li> <li>• 홍보 및 브랜딩 교육</li> <li>• 모금 컨설팅</li> </ul>	
<p><b>재난참사 기록학교 (2022 더 나은 캠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박 3일 워크숍 진행</li> <li>• 활동가 양성: <b>17명</b> 양성 (선정된 21명 가운데 81%)</li> <li>• 교육 및 실습: <b>10회</b>(29시간)</li> <li>• 교육 만족도: <b>4.4/5점</b></li> <li>• 기록 활동 도움 정도: <b>4.7/5점</b></li> <li>• 2023년 이태원 참사 인권기록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발간</li> </ul>	

### 모두의 인권을 위한 '포용적 공간 생태계' 구축

인권운동 단체들, 특히 장애인 혹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에게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공간이 소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으며, 때로는 활동 내용을 이유로 인권단체의 공간 이용을 거절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대관료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열악한 공간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활동의 지속성과 조직 성장의 제약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제는 소수자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공간, 나아가 인권 활동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 소수자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간 마련의 어려움

인권단체들이 활동 공간을 임대하거나 대관하려 할 때, 기존 공간들은 물리적·사회적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은 인권활동가들과 행사 참여자들에게 구조적인 장벽이 되곤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진입구와 이동통로가 좁은 공간, 점자 안내문이나 수어·문자 통역 등 기본적인 접근성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휠체어 이용자나 청각·시각장애인을 배제합니다. 일반적인 남녀분리 화장실은 성소수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하기 어려우며, 다른 이용자를 마주칠 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나 장애인 관련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관 과정에서 공간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등의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인권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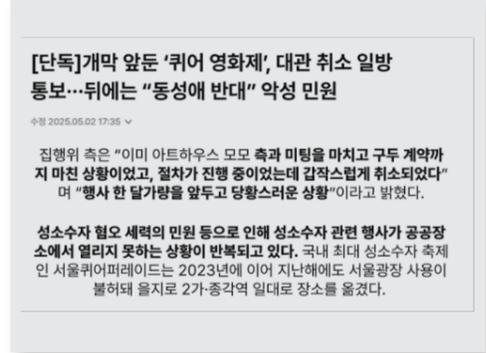
### 인권단체의 재정상황 대비 높은 대관비

설립 초기 인권단체들은 안정적인 자금 기반이 부족해, 공간 확보를 위한 월세와 보증금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해 활동가의 개인 주거 공간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자체 공간이 없는 경우 회의나 행사를 외부 공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대관비로 지출됩니다. 특히 당사자 운동이 중심인 인권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의 접근성이 보장된 공간을 이용하려면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활동가는 “저렴한 대관 장소를 우선 찾다 보면 소수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간 접근성 확보와 제한된 예산 사이의 충돌은 인권단체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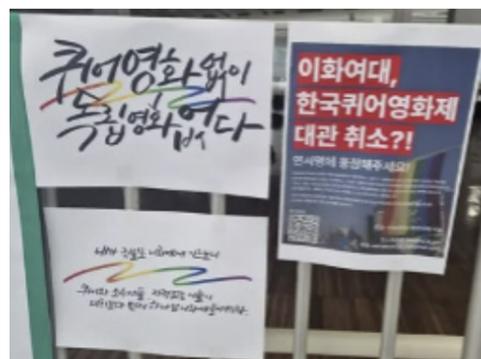
### 인권단체 수요에 귀 기울인 공간 기획

'적절한 공간이 갖춰지는 것 만으로도 활동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인권재단 사람의 공간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적절한 공간'인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인권재단 사람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였고, 실제 활동가들의 수요를 반영해 공간 기획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웨비나와 온라인 회의가 일상화된 흐름 속에서, 활동가들은 디지털 설비를 갖춘 회의실과 연습공간,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 그리고 온·오프라인 병행이 가능한 회의 공간의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의  
2025년 퀴어영화제  
대관취소 사례



기사 출처: 배시은, & 백민정. (2025년 5월 2일). 개막 앞둔 '퀴어 영화제', 대관 취소 일방 통보...뒤에는 "동성애 반대" 악성 민원.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611001>



이미지 출처: 정인선. (2025년 5월 9일). "이대 정신이 성소수자 탄압?"...학생·동문,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 반발 [이미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6658.html>

인권운동 공간 수요조사  
인권단체의 공간에 대한  
욕구와 기존 인권재단사람  
공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기간: 2020년 10월 14일 ~ 25일 (12일) | 조사 대상: 인권활동가 / 응답자 수: 50명



**온오프라인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온라인 회의, 온라인 행사가 많아지는데 이와 관련한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대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루 접근가능한 행사 및 모임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코워킹 가능한 인권활동가 전용 업무공간**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오며가며 주고받는 에너지, 정보, 네트워크 인맥 효과 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용도 연습실**  
미디어가 대세인 요즘 유튜브 제작 공간과 맘껏 노래와 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활동가 쉽 공간**  
인권활동가들이 이동이 많은 데 중간에 비는 시간에 편하게 들러서 쉬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공간**  
서울 임대료가 날이 상해 소규모단체는 업무공간 대여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동 경로 중간에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 미디어 제작을 위한 다용도 공간, 소규모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공간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청을 토대로, 인권재단 사람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인권운동의 특성과 변화 양상에 부응하는 새로운 활동 기반, '스테이션 사람'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의 베이스캠프 '스테이션 사람' 건립**

현장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권재단 사람은 2023년 '스테이션 사람'을 건립했습니다. 공간 설계에 서부터 소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권단체들에게 거절에 대한 걱정 없는 저렴한 장소를 제공하여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발판이 되고자 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스테이션 사람'은 5개 층으로 세워진 건물로, ▲지하 1층(사람홀) ▲1층(라운지) ▲2층(입주단체 사무공간) ▲3층(인권재단 사람 사무공간) ▲4층(입주단체 회의공간) 및 옥상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소수자들을 환대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한 공간**

'스테이션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추구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건물의 모든 곳에 진입할 수 있도록 넓은 진입구와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모든 층에서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어 통역과 문자통역을 위한 설비, 점자 안내문과 점형 블록, 이해하기 쉬운 표지판과 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스테이션 사람'의 화장실은 '1인용 성중립 화장실' 또는 '모두의 화장실'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여자화장실/남자화장실 중 한 곳을 선택함에 따른 곤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젠더 표현을 가진 이들이 다른 이들의 시선에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주요 대관 공간들도 행사를 위한 방송·영상·음향 설비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행사에 함께할 소수자들을 세심히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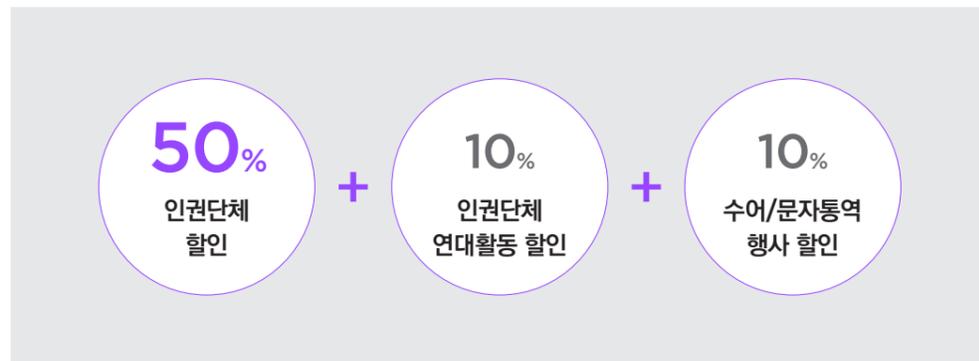
'사람홀', '라운지' 두 공간 모두 책상 사이 간격이 넉넉하며, 필요할 시 책상과 의자를 재배치할 수 있어 휠체어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한, 사람홀에는 접이식 경사로를 마련해 휠체어 사용자가 무대에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무대를 이동식으로 설치해 무대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신체 조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조절용 책상, 어린이 참가자를 위한 유아용 의자도 구비했습니다.

**스테이션 사람의 접근성을 위한 시설물**

<p><b>수어 통역 · 문자 통역</b></p> <p>사람홀에 수어·문자 통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유</p> 	<p><b>점자 안내문 / 점형블록</b></p> <p>주요 공간에 점자 안내문과 점형블록 설치</p> 
<p><b>성중립 화장실 / 모두의 화장실</b></p> <p>젠더 정체성,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한 1인 화장실</p> 	<p><b>이해하기 쉬운 표지판 / 안내문</b></p> <p>표지판과 안내문에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 높은 문구 사용</p> 
<p><b>최대 60인 규모의 행사 개최 공간 '사람홀'</b></p> 	<p><b>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 '라운지'</b></p> 

### 인권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맞춤형 공간

'스테이션 사람'에서는 인권단체라는 이유로 공간 대관이 거절당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인권단체의 활동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일반 대관 공간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대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가 직접 대관할 경우 기본 50% 할인을 제공하며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칩니다. 또한 행사 주최 단체 중 인권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권단체 연대활동 할인' 10%, 행사에 수어·문자 통역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통역 지원 행사 할인' 10%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인권단체의 대관을 환영하고, 합리적인 대관료와 인권단체 맞춤형 할인 제도를 제공하는 스테이션 사람의 존재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인권단체들이 행사 주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접근성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모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2024 IMPACT REPORT

# 3

가능성에서 현실로:

##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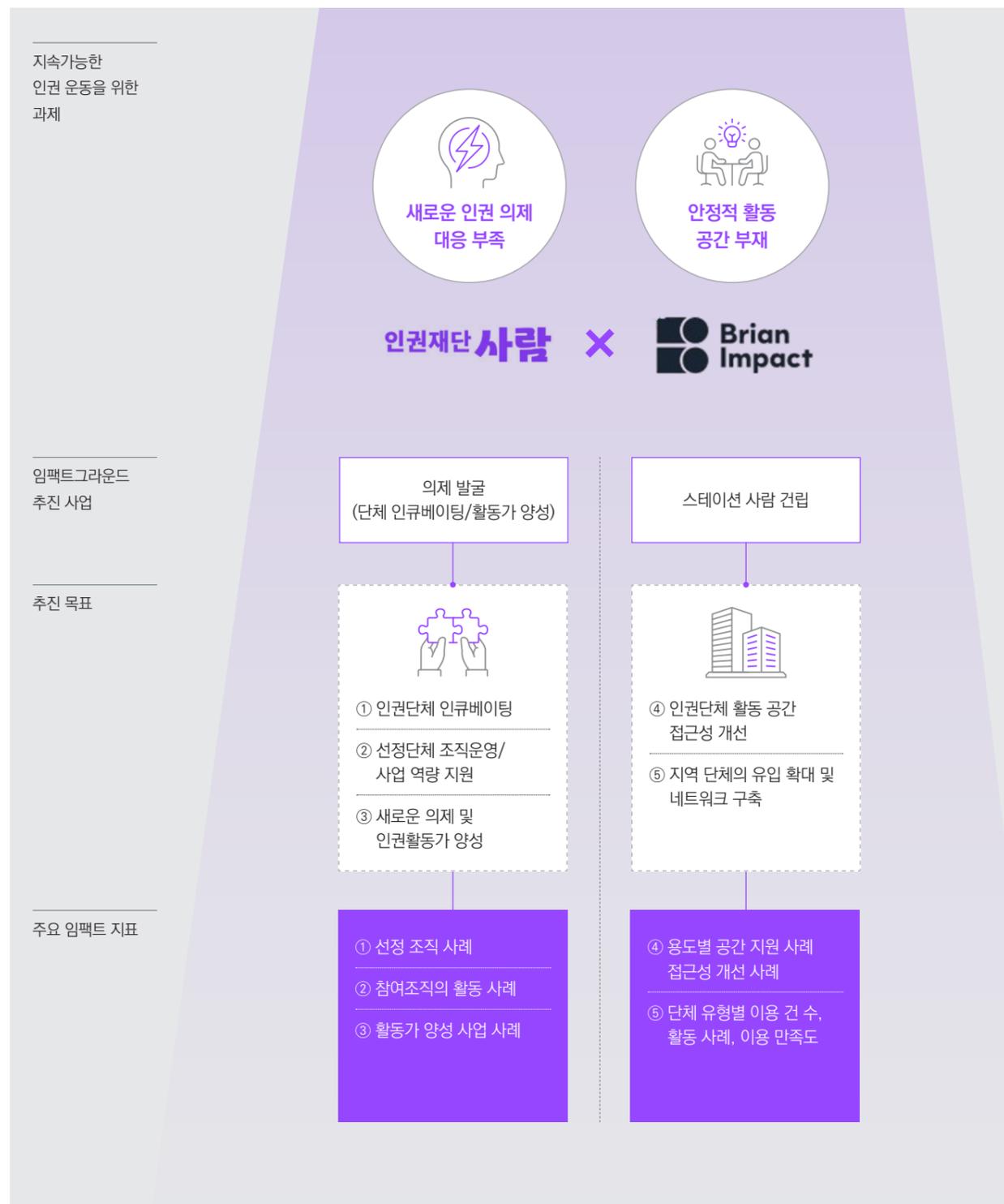


인권재단 사람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 사각지대를 밝혀내며 새로운 인권 의제를 사회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스테이션 사람'은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인권운동의 방식과 생태계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한 인권재단 사람의 주요 임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팩트 하이라이트

**한국 사회 인권 의제 발굴**

인권재단 사람은 한국 농민 성소수자와 참사피해자 인권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너머의 청소년 인권운동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보호소 탈시설 이주민 이슈를 제기하며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했습니다.

**인큐베이팅 지원 조직 수**

**2**단체

인권재단 사람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농민 LGBT+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게 교육, 네트워킹, 조직 운영 등 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17**명

**인권활동가 양성 수**

재난참사 기록학교를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인권활동가 17명을 양성하고, 기록 기반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7**가지

**스테이션 사람 이용 단체 유형 수**

스테이션 사람은 인권단체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 예술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9**곳

**스테이션 사람 이용 단체 수**

**4.7** /5점

**조직 운영 역량 강화**

인큐베이팅 참여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역량과 사업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4.4** /5점

**사업 운영 역량 강화**

**199**명

**지역 인권활동가 참여자 수**

인권재단 사람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론장 형성을 지원하였으며 총 199명의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임팩트 1.**  
새로운 인권  
의제 발굴로  
인권 사각지대를  
비추다

**인권 의제 발굴의 중요성**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차별, 소외, 폭력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 이주와 난민 증가 등은 새로운 인권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 문제들이 젠더 감수성의 변화, 교차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책과 제도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던 인권 의제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역할: 의제를 세우고 주체를 만드는 인권운동의 동력**

인권재단 사람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간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넘어, 인권운동 내 새로운 의제, 조직의 등장을 직접 기획하고 개입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존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이미 존재하는 조직이나 활동을 유지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인권재단 사람은 사회에서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영역에서 활동할 새로운 주체를 조직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에게 있어, 새로운 단체의 탄생을 돕는 것은 단지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뤄지지 않은 인권의제를 사회 전면에 드러낼 주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인권운동의 외연을 넓히고 다양한 약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드러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인권재단 사람이 단체 인큐베이팅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인권 의제 발굴에 특화된 인권재단 사람의 힘**

현장과의 긴밀한 연결성	기회와 자원을 만드는 실행력	의제 중심의 지원 철학
'신입 활동가 공동 교육', '인권운동더하기'와의 연대 등 다양한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제나 조직에 대해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공간, 재정, 교육, 컨설팅 등 실질적 자원을 밀착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단체들의 안정적인 출범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왔습니다.	인권 의제를 중심에 두고, 기존 운동의 틀 밖에서 활동을 시작한 주체들에게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문제 제기에도 머무르지 않고 공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제도권을 아우르는 협력구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새로운 인권 의제 발굴 기준**

인권재단 사람은 사회적 관심이 긴급한 지점에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을 만들고자, 아래의 기준을 중심으로 총 4가지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2개의 단체를 인큐베이팅했습니다.

<b>기존 인권운동 내 사각지대 여부</b>	한국 사회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거나, 기존 단체들이 다루지 않던 주제였는가?	
<b>당사자 기반성과 운동의 독립성</b>	의제의 중심에 실제 당사자가 있으며, 해당 단체가 자율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b>운동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b>	단순한 구호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는가?	
<b>조직화 가능성</b>	장기적인 운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가?	
<b>발굴의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 성소수자 인권</li> <li>• 청소년 인권</li> <li>• 외국인 보호소 탈시설 난민 및 이주민 인권</li> <li>• 재난 참사 피해자 인권</li> </ul>	
<b>인큐베이팅 지원 단체</b>	<p>한국농민 LGBT+</p>	<p>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p>

###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사례

#### ① 이종의 소수자 정체성에 기반한 '농인 성소수자 인권운동' - 한국농인LGBT+ 인큐베이팅

- **기존 인권운동 내 사각지대 여부:** 농인 성소수자는 청각장애와 성소수자라는 이종의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복합적인 차별과 소외를 겪습니다. 한국 농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수어가 성적인 의미에만 국한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비장애인사회에서는 수어 통역의 부족, 편견,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농인 성소수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고립돼 왔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국내 최초로 농인 성소수자 단체를 인큐베이팅함으로써, 이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당사자 기반성과 운동의 독립성:** 한국농인LGBT+는 국내 최초의 농인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2019년 농인 성소수자 당사자와 얼라이(소수자의 권리와 평등을 지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농인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언어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 **운동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 한국농인LGBT+는 농인 성소수자 인권 실태조사, 성소수자 수어 어휘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농인 성소수자 의제를 알리고 인식과 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는 단체입니다.
- **조직화 가능성:**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 이후 한국농인LGBT+는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수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핵심사업 시범운영과 정비 등 사업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 지원에도 참여했습니다.

(참고) 한국농인LGBT+ 주요활동

**성소수자 관련 한국수어 어휘 개발**

한국농인LGBT+는 성소수자를 성적 행위 중심으로만 표현하는 기존 수어에 문제를 제기하고, 농인 성소수자가 존중받는 언어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안 수어 37가지를 개발했고 2025년부터는 한국수어누리사전에 성소수자 수어가 누락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SNS기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국립국어원으로부터 2027년 한국수어누리사전에 성소수자 수어 표현을 등재할 것과 자문위원회 구성시 농인 성소수자 당사자와 인권활동가를 포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이 GAY

레즈비언 LESBIAN

**국내 최초 농인 성소수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한국농인LGBT+는 2024년 농인 성소수자 11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보고서 '농인 성소수자와의 대화를 제안하다'를 발간했습니다. 성소수자 모임에서 농인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당하거나, 농사회 내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참여자들의 실정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수어 어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초 농인 성소수자 실태조사인 본 보고서는 이들의 존재와 경험을 사회에 알리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 국내 최초 수어 기반 인권 뉴스레터 '수어레터' 발행

2021년 출발한 수어레터는 국내 최초의 수어 기반 인권 뉴스레터입니다. 농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소식과 활동을 농인 당사자들에게 친숙한 언어인 수어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친화 수어 개발 과정, 국내외 농인 성소수자 단체와의 교류, 농접근권 실천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수어레터는 농인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인LGBT+ 활동가가 만난 변화

#정식 단체명으로 활동 본격화	#지속가능성 강화	#운영위원회 체계 도입
 <p>“‘설립 준비위원회’가 아닌 ‘한국농인LGBT+’라는 이름으로 정식단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p>	 <p>“단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이 단체가 없으면 농사회에서, 특히 농인 성소수자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더욱 단결하게 되었습니다.”</p>	 <p>“기존에는 ‘상임 활동가’와 ‘자원 활동가’로만 구분했다면, 이후 ‘운영위원회’ 체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기준을 재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자원 활동가를 새롭게 모집했습니다.”</p>

② 세대 너머의 '청소년 인권운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큐베이팅

- **기존 인권운동 내 사각지대 여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오랫동안 '미성숙한 존재',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왔습니다.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체벌, 두발·복장 규제와 같은 규율 중심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고, 정당한 발언권이나 정치적 참여 권리는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당사자가 주도하는 인권운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활기를 띠었지만, 개별 이슈에 그치거나 운동의 지속 가능성이 제한되었던 현실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 낼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청소년 인권 의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조직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 **당사자 기반성과 운동의 독립성:** 2022년 설립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청소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사회를 바꾸는 인권운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지음은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겪는 차별과 통제를 드러내고, 체벌 금지, 학생 자치 확대, 두발·복장 자유 등 다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 **운동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 지음은 청소년 인권운동의 주체를 청소년 당사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비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인권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운동 주체의 생애주기를 확장하고, '좋은 어른'이라는 개인 윤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나쁜 어른을 만나도 괜찮은 사회 구조'를 만들자는 구조적 문제 제기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청소년 인권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제도와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시도입니다.
- **조직화 가능성:** 지음은 기존 청소년운동을 경험한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단체로, 운동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을 통해 미션/비전/핵심가치뿐 아니라 정관 수립과 운영 체계 마련 등 조직 기반도 안정적으로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지음은 단기적인 프로젝트 단체가 아닌, 지속가능한 인권운동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주요활동

'학교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 진행

지음은 2022년부터 '학교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교 내 체벌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습니다. 캠페인은 체벌이 단순한 학교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행위를 강조하며 체벌 없는 학교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196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총 17명의 체벌 경험을 기록한 캠페인 기록집을 통해 각 시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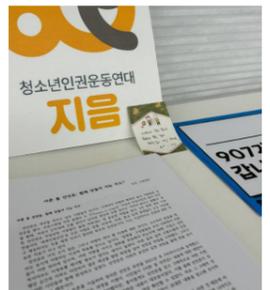
'어린 사람은 아랫 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진행

청소년을 단순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어린 사람은 아랫 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통제의 문제를 부각하며 일상 속 어린이 차별 언어인 '젼민이', '급식중' 등의 언어생활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이 위계 없는 언론보도 및 취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의 캠페인 확산에 힘썼습니다.



'지음의 활동을 함께 채우는 사람들' 프로젝트 진행

신입 청소년인권활동가 교육 및 양성을 위해 부스활동, 역사 여행, 네트워킹 활동, 집회 참여 등 10여 차례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활동가들은 기획과 진행 경험을 쌓고 상호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참여자 가운데 책임 활동가로 활동을 확대하고 본인 지역에서 청소년 모임을 준비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새로운 리더십 발굴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가 만난 변화

#채움활동가 역할 및 운영 방식 체계화



"기존에는 상임 활동가, 책임 활동가, 채움 활동가 등으로 역할을 구분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실제 참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 체계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채움 활동가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수정 및 확대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기후원자 증대



"모금 활동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언은 후원을 요청하는 데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언 덕분에 2024년 하반기 모금 워크숍을 시작할 때 저희도 자신감을 얻었고, 정기 후원자 10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③ 외국인 보호소 탈시설 난민 및 이주민 인권 -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인큐베이팅

- **기존 인권운동 내 사각지대 여부:** 한국 사회에서 난민 및 이주민 인권운동은 주로 법률지원, 생계지원 등 긴급구호적 접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소 내 장기 구금, 인권 침해, 구조적 차별 문제는 오랫동안 공론장에서 소외되어 왔고, 특히 난민 당사자의 장기 보호 문제는 인권운동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이하 IW31)은 이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 **당사자 기반성과 운동의 독립성:** 'IW31'은 외국인 보호소 피해 생존자, 난민·이주민 지원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당사자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단체였습니다. 내부에는 보호소 수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었으며, 자율적인 문제 제기과 운동 방향 설정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당사자 기반성과 운동의 독립성 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을 했지만,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한 내부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 **운동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 보호소를 '범죄자 격리 시설'이 아닌, '인권 침해의 장소'로 구조화하고, 이를 해체해야 할 감금 시설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접근과는 다른, 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인권 개입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난민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당하는 시민권 밖의 존재로 재위치시키며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전환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체는 해산되었으나 그럼에도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IW31)'은 난민 및 이주민 인권운동에서 '탈시설'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해산 이후에도 해당 활동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의제를 이어가며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평가할 지점입니다.

④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운동 - 재난참사 기록학교 운영

인권재단 사람은 2022년 '더 나은 캠프'를 운영하며 인권활동가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인권 이슈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 **기존 인권운동 내 사각지대 여부:** 한국 인권운동은 그동안 재난참사를 인권의 문제로 명확히 다루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피해자 권리옹호 활동은 주로 법률지원이나 시민적 애도 중심으로만 이뤄졌습니다. 특히 재난 피해자를 주체로 세우고, 피해 경험을 사회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연결하는 시도는 드물었습니다. '재난참사 기록학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기록하고 옹호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한 사업으로 인권운동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 **당사자 기반성과 운동의 독립성:** 본 사업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거주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단체 추천 및 지역성을 고려해 참여자를 구성했습니다. 참여자 일부가 이후 인권기록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성 기반의 운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제도 밖의 활동가들을 독립적으로 길러낸 시도입니다.
- **운동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 재난을 국가의 부주의나 기술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불평등과 국가 책임의 구조적 결과로 인식하는 전환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재난참사 기록학교'는 피해자의 감정과 경험을 단순한 치유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의정에 대한 증언이자 공공 기록으로 남기는 실천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회복하고, 재난 대응에 있어 인권 기준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구조적 접근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직화 가능성:** 이번 사업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 다수가 후속 활동(기록, 출판, 진상규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의 씨앗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직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상시 조직이나 단체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 재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속적 조직화를 위한 실험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팩트 2. '스테이션 사람'이 바꾼 인권 운동의 풍경

'스테이션 사람'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인권운동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사람'은 단순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인권활동가들의 삶에 기꺼이 맞춰지는 인권활동의 바탕입니다. 공간이 바뀌니 활동이 달라졌고, 활동이 달라지니 연결과 가능성의 지형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인권활동이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 위에서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열린 공간

'스테이션 사람'의 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은 행사 준비나 진행, 참여자 응대에 있어 실질적인 편의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설계된 공간은 그 자체로 이용자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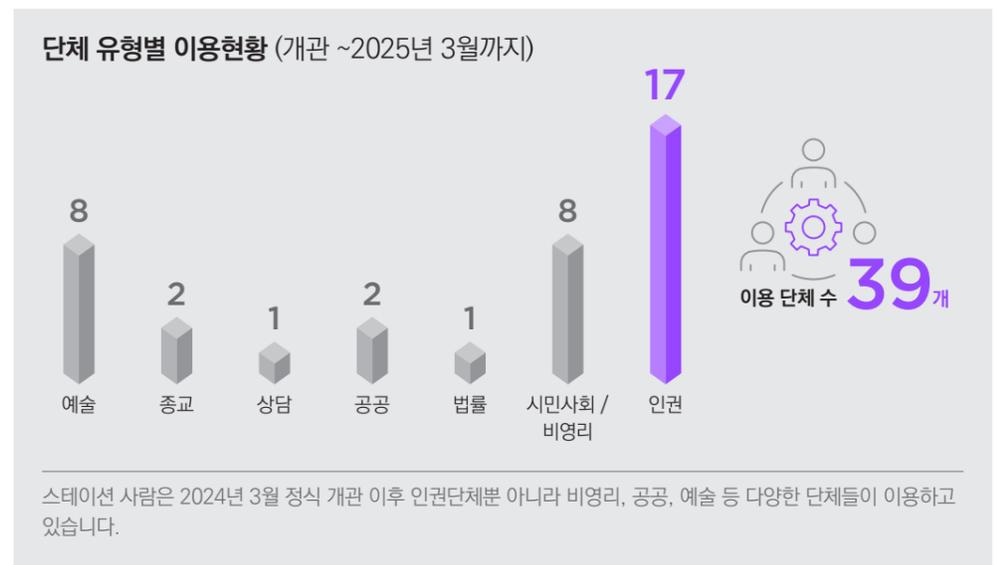
 스테이션 사람 공간이 무대 경사로도 엄청 크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은근히 보기가 어려운 장면 중 하나거든요. (다른 곳은) 경사로를 그 정도 폭과 경사도로 설치한 곳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_인터뷰 B, '스테이션 사람' 대관 이용자

 마을의 장벽을 조사하는 40-60대의 지역주민 활동가분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학습하며 활동하지만 성중립화장실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예요.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에서도 성중립화장실 사례는 언급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스테이션 사람의 공간을 빌려 젠더와 관련한 시설도 사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 자연스럽게 '어, 이런 것도 있네'라고 보시고, 직접 이용도 하시게 되니까. \_인터뷰 B, '스테이션 사람' 대관 이용자

또한 '스테이션 사람' 그 자체는 '공존'이라는 경험을 제시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행사 참여자들이 '스테이션 사람'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었다는 B의 이야기는 이 공간이 방문자들의 세대와 경험을 넘어 인권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개념은 40~60대 활동가들에게 아직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당 화장실을 이용해보는 경험은, 성정체성 소수자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존의 남녀 이분법적 화장실에서 이용을 배제당했던 이들을 '모두'라는 이름 아래 포용하는 공간이 인권 감수성과 상상력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활동가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고려해야 할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대관 거절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인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존재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활동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 달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언제나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우리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로 받아들였습니다. '혐오가 난무하는 시대에 인권을 생각하는 공간이 저기에 있다', '인권활동을 지지하는 공간이, 인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는 것이 스테이션 사람이 갖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_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스테이션 사람' 담당 권민경

더 다양한 분야로,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될 '스테이션 사람'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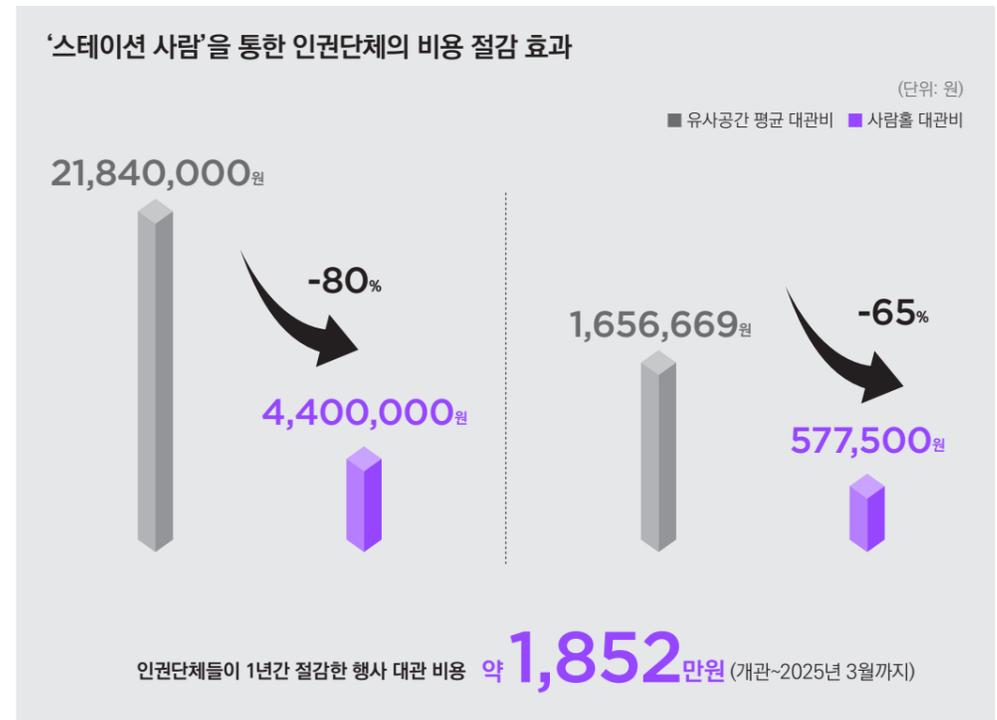
'스테이션 사람'을 이용하는 단체들의 폭넓은 스펙트럼은 이 공간의 영향력이 인권운동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간을 대관한 조직들은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예술, 종교, 상담, 공공, 법률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환대받는 경험은 인권의 가치를 조직 저마다의 고유한 활동 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파하며 더욱 넓은 분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동네 분들도 지나다니시면서 새로 생긴 건물을 신기해 하시고 저희가 걸어둔 포스터나 홍보물을 이것 저것 살펴 보시고 질문하시기도 하는데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기도 낯설기도 하신 분들께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_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스테이션 사람' 담당 권민경

또한, '스테이션 사람'이 전달하는 인권의 메시지는 지역사회와의 접점에서 살아납니다. '스테이션 사람'은 지역 주민들이 공간 이용자와 소통하거나 포스터, 홍보물을 접할 기회를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스테이션 사람'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 인권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용 걱정 대신 활동에 힘을 쏟도록 돕는 단단한 기반

'스테이션 사람'의 대관 할인은 인권단체들이 외부 공간을 이용할 때마다 들던 대관비 부담을 연간 약 1,852만원 가량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 공간 대관비<sup>1)</sup> - '스테이션 사람' 사람홀/라운지의 인권단체 대관비<sup>2)</sup>) X 2024년 1년간 대관 횟수<sup>3)</sup>**

- 사람홀 이용을 통해 절감한 대관비용: (682,500 - 137,500) x 32
- 라운지 이용을 통해 절감한 대관비용: (236,667 - 82,500) x 7

**1) 유사 공간 대관비 산정 기준 (출처: 2024년 스테이션 사람 이용 기록)**

- \* 행사 이용 정보: 사람홀 평균 이용자 수 30-40명, 대관시간 4-6시간 / 라운지 평균 이용자 수 15명, 대관시간 4-6시간  
→ 대관 이용료 산정 기준: 사람홀 수용인원 35명, 5시간 사용 / 라운지 수용인원 15명, 5시간 사용
- \* 대관비용 산출 방식: 사람홀 유사공간 4곳, 라운지 유사공간 3곳의 대관료 평균을 계산함
- \* 유사 공간 선정 방식  
- 공간 이용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 활용, 공간 목적, 수용 인원, 접근성, 설비(대형 화면, 인터넷, 음향) 등 유사성 고려

구분	대관비(원)	최대수용인원	설비	역 접근성	공간 특징
사람홀	137,500	60	○	새철역 도보 2분	모두의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있어 휠체어 이동 편리 높이조절 책상과 영유아 보조 의자 있음
강의실 A	1,000,000	70	○	역삼역 도보 1분	화장실 남녀분리, 책상 간격 좁아 휠체어 이동 불가
세미나실 B	550,000	80	○	합정역 도보 8분	4층이나 엘리베이터 없어 휠체어 출입 불가
세미나실 C	740,000	60	○	충무로역 도보 2분	의자가 이동시키기 편리해 휠체어 이동공간 확보 가능
강의실 D	440,000	70	○	양재역 도보 5분	엘리베이터 있음, 의자/테이블 이동 가능하나 사전 준비 필요

구분	대관비(원)	최대수용인원	설비	역 접근성	공간 특징
라운지	82,500	20	○	새철역 도보 2분	사람홀 내용과 동일, 다과를 준비할 수 있는 주방이 있음
회의실 E	280,000	20	○	서대문역 도보 6분	엘리베이터, 주방시설 있음
회의실 F	255,000	18	○	역삼역 도보 3분	엘리베이터 있음, 커피 제공
회의실 G	175,000	25	○	서울역 도보 3분	지상 3층, 엘리베이터 없음

2) '스테이션 사람'을 인권단체가 1시간 대어할 시 사람홀 27,500원, 라운지 16,500원의 대관비가 발생함. 인권단체 연대활동, 수어/문자통역 제공 시 각 10%씩 추가 할인이 적용되므로 실제 절감된 대관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3) 2024년 1년간 대관 횟수: 2024년 기준 연간 사람홀 32회, 라운지 7회

인터뷰이 B는 공간 대관비를 아낀 덕분에 수어통역사에게 통역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권단체들이 물리적인 행사준비보다 행사의 내용과 함께한 이들에게도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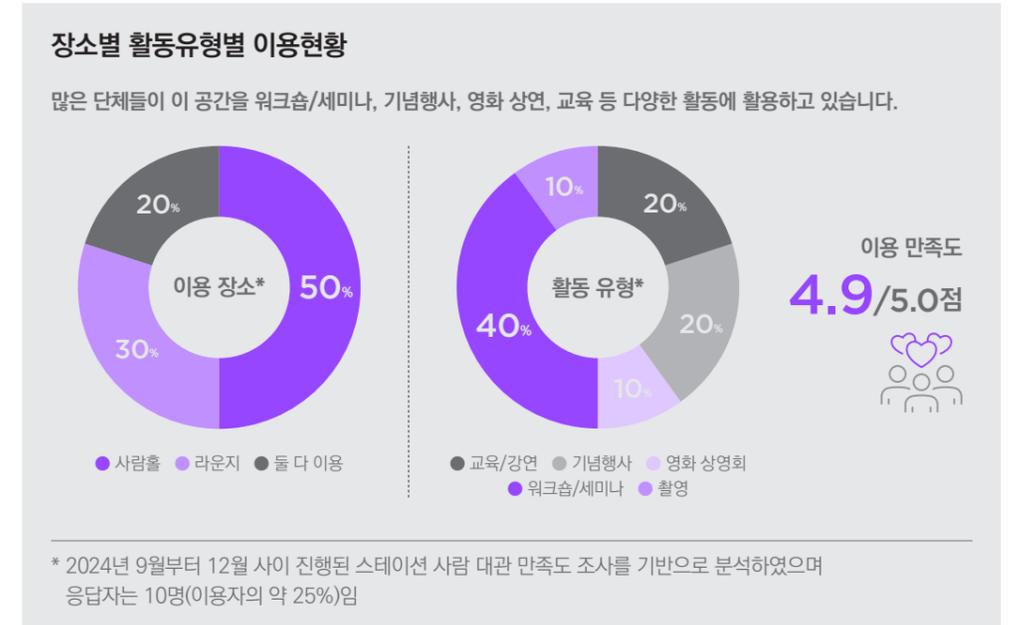
 수어 통역은 통역사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공간에서 비용 할인을 해주시면, 그걸 세이브해서 수어통역사분을 섭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어통역사분이 저희와) 연대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와주시기는 했겠으나, 공간을 할인받아서 정당한 비용을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_인터뷰이 B, '스테이션 사람' 대관 이용자

실제로 강연·세미나 1시간 기준 수어통역사 2인 통역료인 40만원(출처: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은 사람홀의 평균 대관비 절감액인 약 59만원(수어 통역 제공행사 할인 기준)을 통해 충당됩니다. '스테이션 사람' 사람홀이 줄여 준 대관비만으로도, 2024년 진행

된 32회의 행사에서 수어통역사를 고용해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총 64명의 통역사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스테이션 사람'이 인권활동 생태계에서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잠재력을 보여 줍니다.

**다양한 인권활동의 모습을 실현하는 무대**

'스테이션 사람'은 인권단체들이 워크숍, 세미나, 기념행사, 영화 상연,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고 상근 인원이 적은 인권단체들에게, 활동가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인 '스테이션 사람'은 협업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권 활동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들의 연결다리가 되어주는 공간. 부담 없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열린 무대. '스테이션 사람'은 인권단체들에게 필요했던 지지와 활력을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연대체에서 좀 회의를 하시기 위해 방문하셨던 일도 생각이 나네요. 이전까지는 노트북의 작은화면으로 진행했는데, 넓은 공간과 큰 화면, 큰 스피커를 이용해 편하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_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스테이션 사람' 담당 권민경

 지난 5월 중순 진행된 '광장에 나온 뜨개'(인권재단 사람의 특별전시)에서 (...) 행사를 통해 만난 분들과 후속 모임까지 기획하게 되어 전시 참여가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물입하다 보면 알고 넓은 연대가 오히려 힘이 될 때가 있는데, 전시를 통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_인터뷰이 A, 인권단체 활동가

## 2024 IMPACT REPORT

#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인권재단 사람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바탕으로, 인권운동의 기반과 확산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첫째, 인권 운동 현실이 새로운 의제들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재단 사람은 초기에 움트는 인권단체들을 지원 및 활동가를 양성함으로써 새로운 인권 의제가 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인권 이슈들이 공론화되고, 다양한 시각의 인권 활동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스테이션 사람'의 건립을 통해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등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겪던 공간 차별과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활동가와 단체들의 든든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며 인권단체 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은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인권운동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향해, 앞으로의 5년을 인권운동의 연결, 성장, 확산의 시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연결'을 통해 인권운동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질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세대의 인권활동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교육과 네트워크의 장을 넓혀, 고립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는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가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다시 현장을 돌볼 수 있는 힘을 함께 축적할 것입니다.

'성장'은 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인권활동가 개인의 전문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전략적 기획과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대 인권운동의 기반이 될 건강한 조직들이 더 많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성장은 곧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산'을 통해 인권이 더 이상 소수만의 언어나 운동이 아닌,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시민 커뮤니티 플랫폼인 <스테이션 사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인권을 옹호하고 후원하며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넓히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앞으로도 '사람'의 곁에 머무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인권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인권운동의 가능성과 지속을 위한 여정에 언제나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